<h1>나 혼자만 레벨업-99화</h1>  
  
  
 <div class="yf2a91b8a26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99화</p>  
<p>"혹시 가까운 사람 중에 헌터나 지금은 헌터가 아니지만 각성자 판정을 받은 분이 계십니까?"</p>  
<p>의사가 대뜸 이상한 소리를 했다.</p>  
<p>어디가 아픈지를 물었는데 어째서 헌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?</p>  
<p>유명한은 되물었다.</p>  
<p>"그게 무슨 소린가? 갑자기 헌터라니."</p>  
<p>"익면증에 대해서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?"</p>  
<p>익면증이라는 단어에 줄곧 침착함을 잃지 않고 있었던 유명한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.</p>  
<p>익면증.</p>  
<p>깨어날 수 없는 수면.</p>  
<p>단순히 잠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, 환자의 생명력을 빠른 속도로 소진시키기 때문에 마력을 이용한 생명유지 장치가 필수였다.</p>  
<p>게이트가 발생한 이후 등장하기 시작하여 생명유지 장치를 빌릴 여력이 없는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몰아넣은 무서운 병이었다.</p>  
<p>"수시로 졸음이 쏟아지다가 결국 잠에서 영영 깨어나지 못하게 되는 병입니다."</p>  
<p>의사는 착잡한 얼굴이었다.</p>  
<p>아직까지 익면증에 걸린 환자가 잠에서 깨어난 사례는 없었다.</p>  
<p>목숨을 연장한다고 눈을 뜰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. 환자에겐 사형선고나 다름없었다.</p>  
<p>"..."</p>  
<p>유명한은 의사의 설명이 끝나길 기다렸다 물었다.</p>  
<p>"그런데 그게 헌터와 무슨 상관인가?"</p>  
<p>"익면증은 마력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"</p>  
<p>선천적으로 마력을 잘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.</p>  
<p>그런 이들이 오랜 시간 주변의 마력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이상 증상중 하나가 익면증이었다.</p>  
<p>"환자에게 생명력을 공급하는 장치는 마력을 이용한다고 하지 않았나?"</p>  
<p>"그렇기는 합니다만."</p>  
<p>핵 원료는 위험한 물질이지만 거기서 나온 전기는 안전하게 쓸 수 있듯이, 마력을 이용한 마법은 해를 입히지 않는다고 의사가 설명했다.</p>  
<p>"조심해야 할 것은 마정석이나 마석, 그리고 마력을 품은 사람들입니다."</p>  
<p>'마력을 품은 사람들...'</p>  
<p>유명한은 가족 중 유일한 각성자인 유진호를 떠올렸다.</p>  
<p>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.</p>  
<p>"회장님의 차남분이 헌터라고 들었습니다."</p>  
<p>유진호의 이야기가 나오자 유명한의 얼굴이 굳어졌다.</p>  
<p>"그래서... 지금 나더러 내 아들을 만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?"</p>  
<p>"가급적 그렇게 하시는 편이..."</p>  
<p>"웃기는 소리 말게!"</p>  
<p>유명한은 딱 잘라 말하고는 거듭 강조했다.</p>  
<p>"말도 안 되는 소리."</p>  
<p>그러고는 귀찮다는 듯 손짓으로 의사를 물렸다.</p>  
<p>"회장님..."</p>  
<p>의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주저하다가 유명한의 엄한 눈빛에 도망치듯 병실을 빠져나갔다.</p>  
<p>유명한은 의사가 나간 문을 노기가 담긴 눈으로 노려보았다.</p>  
<p>'병이 심해지는 것이 무서우면 아들을 멀리하라니. 그게 아버지에게 할 소리인가?'</p>  
<p>설사 그렇다고 치자.</p>  
<p>만에 하나 그 소식을 진호가 듣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할까?</p>  
<p>아버지로서 아들에게 그렇게 큰 짐을 물려줄 수는 없었다. 적어도 유명한은 그리 생각했다.</p>  
<p>'게다가...'</p>  
<p>마력은 날이 갈수록 점점 그 쓰임새가 확장되고 있었고, 마력을 지닌 사람들의 수 또한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다.</p>  
<p>그런 세상에서 마력을 견디지 못한다는 말은 이미 도태되었다는 소리가 아닌가?</p>  
<p>유명한은 콧방귀를 꼈다.</p>  
<p>'이 유명한이 도태되었다고?'</p>  
<p>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.</p>  
<p>'나는 지지 않는다.'</p>  
<p>모두가 안 될 거라며 손가락질했던 일들도 보란 듯이 해내 왔다.</p>  
<p>재계 30위권에 간신히 들까 말까 했던 유진건설을 물려받아 국내 1위 기업으로 성장시킨 것도 그다.</p>  
<p>'그런데 이제 와서 이까짓 병 따위에 무릎을 굽힐까.'</p>  
<p>나는 지지 않는다.</p>  
<p>유명한은 그렇게 몇 번이고 속으로 되뇌었다.</p>  
<p>\*\*\*</p>  
<p>진우는 나가기 전에 동생의 방문을 조심히 열었다.</p>  
<p>아직 이른 시간이라 진아는 누가 업어 가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잠들어 있었다.</p>  
<p>문득 걱정이 들었다.</p>  
<p>'어쩌면 내가 없는 사이 동생에게 접근하려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.'</p>  
<p>물론 S급 헌터의 여동생에게 해코지하려는 간 큰 놈은 없겠지만, 그래도 사람 일은 알 수 없다.</p>  
<p>최소한의 대비책은 필요했다.</p>  
<p>'가만, 그러고 보니 내 병사들은 그림자 속에 숨을 수 있었지?'</p>  
<p>진우는 묻지마 살인범이 동네에 나타날까 봐 그림자 병사들을 순찰시켰을 때를 떠올렸다.</p>  
<p>그때 병사들은 사물의 그림자 속에 숨어들어 이동했었다.</p>  
<p>그걸 좀 응용하면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동생을 보호할 수 있을 듯했다.</p>  
<p>마침 쓸 만한 녀석들도 있고.</p>  
<p>'나와.'</p>  
<p>진우는 살아생전 어금니의 호위를 맡고 있던 마수병들을 불러냈다.</p>  
<p>스르르.</p>  
<p>하이오크들 중에서도 떡대가 장난 아닌 녀석들이 동시에 셋이나 튀어나오니, 그렇지 않아도 작은 동생 방이 꽉 차는 느낌이 들었다.</p>  
<p>그런데.</p>  
<p>'어라? 왜 셋이지?'</p>  
<p>분명 호위는 넷이었는데?</p>  
<p>기억을 더듬던 진우가 소리 없이 감탄사를 내뱉었다.</p>  
<p>'아.'</p>  
<p>뒤늦게 호위 중 한 놈을 천장에다 꽂아 버렸다는 사실이 떠올랐다. 그놈 그림자를 추출하는 걸 그만 깜박했다.</p>  
<p>'다음엔 신경 써야겠다.'</p>  
<p>진우는 피식 웃고는 하이오크족 호위 출신의 마수병 셋을 보았다.</p>  
<p>전부 정예등급.</p>  
<p>일반등급이었던 보통의 하이오크 그림자들과는 급이 달랐다.</p>  
<p>이 셋이라면 A급 헌터가 상대라도 끄떡없을 거다.</p>  
<p>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헌터스의 공대장이었던 A급 손기훈도 보통 하이오크 셋에게 진땀을 흘렸으니까.</p>  
<p>하물며 이놈들은 말할 것도 없었다.</p>  
<p>진우가 진아 쪽을 턱짓했다.</p>  
<p>그러자.</p>  
<p>스르르-</p>  
<p>그림자 형태로 돌아간 호위들이 바닥을 타고 움직이더니 이내 진아의 그림자에 흡수되었다.</p>  
<p>'좋았어.'</p>  
<p>그렇게 얌전히 숨어 있다가 진아가 위험해지면 상대가 누구든지 봐주지 말고 해치워 버리도록.</p>  
<p>진우는 호위들에게 지시를 내려 놓고 조심히 방문을 닫았다.</p>  
<p>'이제 안심이다.'</p>  
<p>마음이 한결 놓였다.</p>  
<p>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아파트 입구로 내려가니, 약속대로 유진호가 기다리고 있었다.</p>  
<p>"형님!"</p>  
<p>유진호는 밝은 얼굴로 인사를 건넸다.</p>  
<p>"자는 데 불편하지는 않던?"</p>  
<p>"네, 형님. 요새는 모텔도 시설이 아주 괜찮던데요?"</p>  
<p>집에는 동생도 있고 해서 진우는 유진호를 근처 모텔에 묵게 했다.</p>  
<p>다행히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던 모양이다.</p>  
<p>"길드 사무실 구할 때까지만 거기서 지내."</p>  
<p>"알겠습니다, 형님."</p>  
<p>뭐가 그리 좋은지 유진호는 히죽히죽 웃었다.</p>  
<p>이야기는 어제 대충 들었다.</p>  
<p>자초지종을 들으며 설마설마했는데 정말로 길드 마스터 자리를 박차고 왔을 줄이야.</p>  
<p>듣고서 하도 어이가 없어 물었더니, 유진호는 억울하다는 듯 대답했다.</p>  
<p>"오란다고 진짜 오냐?"</p>  
<p>"형님이 오라고 하셨잖아요!"</p>  
<p>그래도 나 좋다고 사장급 직함을 박차고 나온 녀석을 욕할 수도 없고.</p>  
<p>"가자."</p>  
<p>"네, 형님."</p>  
<p>유진호는 운전석에 탔고, 진우는 보조석에 올라탔다.</p>  
<p>두 사람을 태운 봉고는 대성타워로 향했다.</p>  
<p>유진호가 진우를 흘깃거렸다.</p>  
<p>'이 이른 시간에 대성타워에 무슨 볼일이 있으시지?'</p>  
<p>궁금했지만 형님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이 건방지다고 생각해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.</p>  
<p>끽.</p>  
<p>봉고가 대성타워 앞에 섰을 때야 비로소 용기가 생겼다.</p>  
<p>"그런데 형님, 저기 대성타워엔 왜..."</p>  
<p>"갔다 온다."</p>  
<p>"네?"</p>  
<p>유진호가 급히 고개를 돌렸다.</p>  
<p>하지만 어느새 봉고의 문이 열려있고, 형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.</p>  
<p>전에도 여기서 비슷한 일을 겪었던 거 같은데.</p>  
<p>유진호는 뒷머리를 긁적였다.</p>  
<p>'형님은 언제 봐도 정말 신출귀몰하시다니까.'</p>  
<p>\*\*\*</p>  
<p>[악마성 던전에 입장하였습니다.]</p>  
<p>진우는 은신 스킬을 해제했다.</p>  
<p>'겨우 돌아왔다.'</p>  
<p>마음껏 날뛸 수 있는 장소로 다시 돌아왔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다.</p>  
<p>성문 입구를 넘어서니 기다렸다는 듯 기계음이 들려왔다.</p>  
<p>띠링.</p>  
<p>[퀘스트가 도착하였습니다.]</p>  
<p>첫 번째 방문과 달리 진우는 놀라지 않았다.</p>  
<p>그때 받았던 퀘스트 이름이 '악마의 영혼을 모아라! 1' 이었으니까.</p>  
<p>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다음 퀘스트가 날아오리라 생각하고 있었다.</p>  
<p>진우는 메시지창을 열었다.</p>  
<p>띠링.</p>  
<p>[일반 퀘스트: 악마의 영혼을 모아라! 2]</p>  
<p>악마성 최상층에는 악마들의 군주 '바란'이 거주하고 있습니다. 바란을 처치하고 그의 영혼을 거두십시오. 악마왕의 영혼을 봉인하는 데 성공한다면 훌륭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.</p>  
<p>퀘스트 발생 조건:</p>  
<p>-[일반 퀘스트: 악마의 영혼을 모아라! 1] 완료</p>  
<p>-악마성 재 입장</p>  
<p>퀘스트 완료 조건:</p>  
<p>-악마왕 처치</p>  
<p>보상:</p>  
<p>-1. 최상급 룬석</p>  
<p>-2. 보너스 스탯 +30</p>  
<p>-3. 공개되지 않은 보상</p>  
<p>'퀘스트의 목적이 악마왕 처치네?'</p>  
<p>진우의 얼굴이 밝아졌다.</p>  
<p>퀘스트를 위해 돌아갈 필요 없이 악마성 최상층까지 최대한 빨리 올라가기만 하면 되었다.</p>  
<p>거기다 보상도 좋았다.</p>  
<p>'보너스 스탯 플러스 30!'</p>  
<p>저번 퀘스트는 악마의 영혼을 1만개나 모아야 하는 노가다의 극치였다.</p>  
<p>그 고생을 하고 받은 보너스 스탯이 20개.</p>  
<p>그런데 이번에는 악마왕 하나를 잡으면 스탯을 서른 개나 준단다.</p>  
<p>일일 퀘스트로는 10일 치. 레벨로는 여섯 번을 더 올려야 얻을 수 있는 스탯이었다.</p>  
<p>기대하지 않았던 많은 보상에 미소가 절로 나왔다.</p>  
<p>'그런데 최상급 룬석은 뭘까?'</p>  
<p>진우는 1번 보상을 확인했다.</p>  
<p>띠링.</p>  
<p>[최상급 룬석: 그림자 교환]</p>  
<p>최상급 룬석을 부수면 직업 전용 스킬을 배울 수 있습니다.</p>  
<p>'직업 전용 스킬을 배울 수 있다고?'</p>  
<p>진우의 눈이 커졌다.</p>  
<p>지금까지 얻은 직업 전용 스킬은 모두 세 개다.</p>  
<p>그림자 추출.</p>  
<p>그림자 저장.</p>  
<p>군주의 영역.</p>  
<p>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, 대단한 스킬들이었다.</p>  
<p>거기에 새로운 스킬을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다.</p>  
<p>'어떤 스킬이지?'</p>  
<p>스킬 정보를 확인하려고 했으나 뜨는 것은 스킬 이름뿐, 자세한 설명까지는 나와 있지 않았다.</p>  
<p>쩝.</p>  
<p>진우는 아쉬움에 입맛을 다셨다.</p>  
<p>'뭐, 퀘스트를 완료하고 직접 확인해 보면 되겠지.'</p>  
<p>직업 전용 스킬과 보너스 스탯 30개.</p>  
<p>공개되지 않는 보상을 뺀다고 해도 이미 어마어마한 수준이었다.</p>  
<p>지금 당장이라도 최상층까지 뛰어올라가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.</p>  
<p>'그래도 시작하기 전에...'</p>  
<p>진우는 오랜만에 상태창을 불러냈다.</p>  
<p>띠링.</p>  
<p>[이름: 성진우]</p>  
<p>[레벨: 80]</p>  
<p>[직업: 그림자 군주]</p>  
<p>[칭호: 역경을 이겨 낸 자 (외 1)]</p>  
<p>[HP: 24,406]</p>  
<p>[MP: 5,019]</p>  
<p>[피로도: 0]</p>  
<p>[스탯]</p>  
<p>근력: 186 체력: 145 민첩: 175 지능: 189 감각: 126</p>  
<p>(분배 가능 능력치 포인트 : 0)</p>  
<p>물리 데미지 감소: 46%</p>  
<p>[스킬]</p>  
<p>패시브 스킬: (알 수 없음) Lv.MAX, 근성 Lv.1, 상급 단검술 Lv.2</p>  
<p>액티브 스킬: 질주 Lv.max, 살기 Lv.1, 은신 Lv.2, 급소 찌르기 Lv.max, 단검 투척 Lv.2, 지배자의 손길 Lv.2</p>  
<p>[직업 전용 스킬]</p>  
<p>액티브 스킬: 그림자 추출 Lv 1, 그림자 저장 Lv.1, 군주의 영역 Lv.1</p>  
<p>[제작 스킬]</p>  
<p>소모품: 생명의 신수 (2/3)</p>  
<p>[착용한 아이템]</p>  
<p>붉은 기사의 투구(S), 악마 군주의 귀고리(S), 악마군주의 목걸이(A), 상급 기사의 흉갑(B), 상급 기사의 건틀릿(B), 상급 마법사의 반지(B), 중급 자객의 신발 (C)</p>  
<p>80까지 오른 레벨.</p>  
<p>그리고 능력치 포인트를 몰빵한 덕분에 근력 스탯을 넘어서게 된 지능 스탯이 눈에 들어왔다.</p>  
<p>'벌써 지능 스탯이 2백에 가까워졌네.'</p>  
<p>그 결과 최대 마나량은 이미 5천을 넘겼다.</p>  
<p>마나는 다른 게 아니다.</p>  
<p>그림자 병사들을 무한히 부활시킬 수 있는 맷집이나 마찬가지.</p>  
<p>앞으로 병사들의 수가 더 늘 걸 생각하면 5천으로도 부족한 감이 들었다.</p>  
<p>'좋아, 시작하자.'</p>  
<p>1초가 아깝다.</p>  
<p>진우는 상태창을 닫았다.</p>  
<p>여긴 악마성 1층.</p>  
<p>이곳에서부터 공략을 완료했던 76층까지는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었다.</p>  
<p>때문에 곧장 층간 이동 마법진으로 들어갔다.</p>  
<p>[1층부터 76층까지 개방되어 있습니다.]</p>  
<p>[어디로 이동하시겠습니까?]</p>  
<p>진우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.</p>  
<p>"76."</p>  
<p>빛이 번쩍였다.</p>  
<p>눈을 한번 떴다 감은 사이 시야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.</p>  
<p>활활 불타고 있는 도시들.</p>  
<p>층간이동 마법진 안에서는 바깥의 영향을 받지 않는데도 피부가 화끈거리는 느낌이 들었다.</p>  
<p>진우는 들고 온 짐을 내려놓고 거기서 아티팩트 두 개를 꺼냈다.</p>  
<p>하나는 제작자가 '바람의 로브'로 이름 지은 검은 옷이었고, 나머지 하나는 수속성 마법이 걸려 있는 이름 모를 반지였다.</p>  
<p>진우는 로브와 반지를 착용했다.</p>  
<p>로브를 입고서 후드까지 쓰고 나니 진짜 마법계열 헌터가 된 기분이 들었다.</p>  
<p>'...몸이 서늘해지네.'</p>  
<p>착용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시원한 동굴 안에 서 있는 것 같았다.</p>  
<p>'과연 악마성의 불꽃에도 통할까?'</p>  
<p>진우는 천천히 층간 이동 마법진을 나섰다.</p>  
<p>과연.</p>  
<p>비싼 값을 한다고 할까.</p>  
<p>전에 왔을 때와 달리 바깥의 고온이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다.</p>  
<p>'로브라서 불편하지는 않을까?'</p>  
<p>혹시 몰라서 몸을 이리저리 움직여 봤는데 생각보다 편했다. 바람의 로브란 이름답게 옷 자체가 공기처럼 가벼웠다.</p>  
<p>'좋아.'</p>  
<p>준비는 됐다.</p>  
<p>그런데 준비가 끝난 것이 이쪽만이 아니었는지, 인간 냄새를 맡은 악마들이 떼를 지어 이리로 몰려들기 시작했다.</p>  
<p>예전 같았으면 몸풀기 삼아 적당히 상대하거나 층 내부를 구석구석 순회하며 레벨을 올렸을 거다.</p>  
<p>'하지만 지금은...'</p>  
<p>어머니의 치료가 달린 만큼 조금의 시간도 허비할 수 없었다.</p>  
<p>진우는 평소처럼 단검을 불러내는 대신, 병사들을 소환했다.</p>  
<p>스르르.</p>  
<p>믿음직한 그림자 병사들이 모습을 드러냈다.</p>  
<p>'어금니는?'</p>  
<p>진우는 어금니를 찾았다.</p>  
<p>계급이 높을수록 가까운 위치에서 나올 수 있는 건지, 어금니는 바로 뒤쪽에 소환되었다.</p>  
<p>진우는 창고에서 '탐욕의 구슬'을 꺼내어 어금니의 손바닥 위에 올려주었다.</p>  
<p>"오늘은 네가 써라."</p>  
<p>마법계열이라고 해도 자신은 '탐욕의 구슬'의 증폭 효과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지만, 어금니의 주술사에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서였다.</p>  
<p>'...'</p>  
<p>어금니는 마치 감사를 표현하려는 것처럼 고개를 깊게 숙였다.</p>  
<p>쿵, 쿵, 쿵.</p>  
<p>드디어 거대한 악마들이 육안으로도 보이기 시작했다.</p>  
<p>'시작해 볼까?'</p>  
<p>진우는 병사들에게 전투 준비를 지시하고 난 뒤 '바루카의 단도'와 '나이트 킬러'를 손에 쥐었다.</p>  
<p>악마들이 코앞에서 벌레처럼 우르르 몰려들고 있었다.</p>  
<p>이쪽에도 숫자는 만만치 않게 많다.</p>  
<p>저번처럼 여유로운 표정으로 타이밍을 재던 진우가 소리쳤다.</p>  
<p>"가!"</p>  
<p>아니, '가자'고 소리치려 했다.</p>  
<p>그런데 목소리가 채 나오기도 전에.</p>  
<p>쿠우우우우우우우우-</p>  
<p>머리 위 어딘가에서부터 사선으로 떨어져 내린, 끔찍한 굵기의 불기둥이 적들을 휩쓸었다.</p>  
<p>"뭐, 뭐야?"</p>  
<p>쿠우우우우우-</p>  
<p>불길이 스치는 순간 악마고 땅이고 간에 모조리 녹아내렸다.</p>  
<p>"키에에에에에엑!"</p>  
<p>"끼웨에엑!"</p>  
<p>순식간에 악마들이 증발하고, 익숙한 기계음들이 이어졌다.</p>  
<p>[레벨이 올랐습니다!]</p>  
<p>[레벨이 올랐습니다!]</p>  
<p>'설마...'</p>  
<p>진우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뒤를 바라보았다.</p>  
<p>거기엔 던전 안에 있을 때보다 두 배는 더 커진 어금니가 입에서 회색 연기를 내뿜으며 서 있었다.</p>  
<p>꿀꺽.</p>  
<p>진우는 마른침을 삼켰다.</p>  
<p>'이게 탐욕의 구슬 위력인가?'</p>  
<p>악마성에 살고 있어 화염 공격에 어느 정도 내성이 있을 몬스터들인데도 전부 태워 버렸다.</p>  
<p>허허.</p>  
<p>상황을 파악하고 나자 절로 실소가 흘러나왔다.</p>  
<p>'이거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클리어할 수 있겠는데?'</p>  
<p>진우는 아직도 불꽃이 꺼지지 않은 악마들의 사체와 새까맣게 그슬린 땅을 보면서 속으로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.</p>  
<p>=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